



WORLD
WARCRAFT
LEGION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어둠의 거울

스티브 대뉴저

나타노스 모리스는 눈을 감고는 몇 번이나 부러졌는지 모를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잠잠하지만 후텁지근한 공기에 가을의 냄새가 섞여 들어와, 길을 수놓는 판석 사이로 자라난 들꽃 향과 어우러졌다. 좋은 냄새였다. 낮익은, 흙의 냄새.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순찰대 사령관은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가왔다. 실바나스 윈드러너에게는 여느 때와 같이 그녀의 고향인 하이 엘프 도시의 장미 정원 향기가 났다. 나타노스는 어디서든 그 향기를 알아챌 수 있었다.

인간은 잠시 침묵하며 서서, 그녀의 존재감을 음미했다. 들리는 것이라곤 오직 침잠하는 태양을 찬양하는 새들의 소리와,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만들었던 낮은 나무 울타리 너머에서 풀을 뜯는 양 떼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는 눈을 떴다. 이 작은 언덕 아래로 매리스의 터전이 펼쳐졌다. 인생 대부분을 보낸 집. 겨울이 되기 전 지주를 받쳐 두어야 했던 공간. 곧 추수해야 할 밀알들.

그의 집.

나타노스는 이 광경을 사랑했다.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이 감상을 애써 지워 버리기 전에 시간을 잠시 더 끌었던 걸지도 모른다.

“여기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가 으르렁거렸다.

“사령관에게 하는 말버릇 보라지.” 실바나스가 나타노스를 향해 몸을 틀며 대답했다. 재미있다는 듯한 말투와는 달리, 그녀의 두 눈은 강단 있게 빛나며 권위를 물씬 풍겼다. 푸른색으로 염색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활을 걸친 그녀 앞에, 님마 같은 평상복에 지저분한 수염을 단 그는 멍청이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타노스는 고개를 저었다. “제 말의 의미를 아시지 않습니까, 실바나스 님. 절 순찰대장으로 임명하신 이래로 원정순찰대는 입을 가만히 두지 않고 구시렁거립니다. 여기 오신 걸 그들이 알 테니, 고귀하신 순찰자들은 개울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마냥 신나게 떠들겠지요.”

실바나스는 자신의 청색 두건을 뒤로 젖혀 길고 창백한 금발을 풀어 내렸다. “네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줄은 몰랐군.” 하이 엘프의 말은 거짓된 동정으로 꿀처럼 달게 흘러내려 그의 결의를 시험에 들게 했다.

나타노스는 좌절감에 이를 꼭 깨물었다. 실바나스가 자신의 통명함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자신의 태도를 당연한 듯이 태연하게 넘길 수 있게 된 것이 짜증스러웠다. “저에 대한 이야기라면 대원들이 무슨 소문을 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우두머리이니, 그들의 존경심을 잃을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바나스는 나타노스의 눈을 가린 적갈색 머리카락 몇 가닥을 옆으로 치웠다. “순찰대 사령관으로서, 나는 내 부하로부터 현장에 대한 보고를 들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가 쿠엘탈라스가 아닌 로데론의 자연에 처박혀 있으니, 직접 와 한 번씩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떨어져 있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 도시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모의는 참을 수 없으니까요. 이곳에서는 생각도 하고... 숨도 쉴 수 있습니다. 고대 첩탐의 그림자 안에서는 누릴 수 없는 소소한 행복이지요.”

“로르테마르는 네가 엘프 궁수들이 두려워 숨었다고 말한다.” 실바나스가 한쪽 눈썹을 추어올리며 말했다.

“로르테마르 테론은 멍청이입니다! 순찰자보다는 정치인이 어울리는 남자지요. 언제 한번 면대면으로 싸울 겁니다.” 나타노스는 더는 혀를 놀리지 않았다. 그의 짜증은 그녀를 즐겁게 만들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더이상의 유희거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다.

“네가 고립되려는 이유를 알게 되어 다행이군. 혹시나 나에게 질린 게 아닌가 했거든.” 석양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실바나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푸른빛 어린 회색 눈동자가 금빛 노을에 반짝거렸다. 햇살이 어찌나 때맞춰 반짝였는지 나타노스는 이것이 실바나스가 대화를 이끌거나 적을 현혹하기 위해 쓰는 주문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물론, 이는 나타노스에게 효과가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실바나스의 허영에 놀아나고 있었다.

“당신이 이곳에 머무는 게 싫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종족은 순찰대 사령관인 당신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는 더더욱.”

엘프가 미간을 찡그렸다. “곧 네 소원대로 될 것이야. 언니 알레리아를 만나기로 했거든. 알레리아 말로는 오크들이 쿠엘탈라스를 눈여겨보며 고향을 공격할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더군. 언니의 걱정이 사실이라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실버문으로 불려가 도시를 지켜야 할 거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고 가까이 당겼다. “실바나스 님, 당신은 제가 임무를 해내리란 걸 아시고, 또 —”

그가 말을 잇던 순간, 밖으로부터 흥분한 듯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나타노스!” 소년은 팔을 흔들며 놀란 양들 사이를 헤쳐 달려왔다. 10 미터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까, 소년의 시선이 하이 엘프에게 고정되었고, 아이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넘어오던 나무 울타리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한 그는 그녀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실바나스 윈드러너 순찰대 사령관님이시다.” 나타노스가 소개했다. “제 사촌, 스테판 매리스입니다. 유일한 혈육이고, 보시다시피 예의 없기로는 이미 저와 겨룰 정도지요.” 스테판의 얼굴이 벌게졌다. 나타노스는 미소를 짓지 않기 위해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머리색과 생김새가 자신과 굉장히 닮은 이 아이를 아꼈다. 스테판은 그에게 멋지고 새로운 세계에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존재였다.

“말도 안 돼, 나타노스.” 실바나스가 아이의 키 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제구실 하는 어른으로 자랄 거야.”

“다... 당신은 순찰자인가요? 제 사촌 형처럼?” 스테판이 눈을 크게 뜨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야, 이 놈아. 실바나스 님은 더 큰 존재야. 이 땅의 모든 순찰자의 우두머리시다.” 나타노스가 말했다.

스테판의 시선이 이곳저곳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어린 마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고 있는 듯 보였다.

하이 엘프는 아이에게 몸을 숙여, 마치 비밀을 말해주듯 속삭였다. “너도 어른이 되면 순찰자가 되고 싶으냐?”

나타노스는 어린아이 특유의 패기를 내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전 기사가 되고 싶어요. 빛나는 갑옷과 커다란 검, 그리고 저만의 성을 가질 거예요! 숲에 살면서 나무 위에서 활이나 쏘는 그런 삶은 살기 싫어요.” 소년이 갑자기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렇다고 순찰자가 별로인 건... 제 말은... 당신을 위해 일 할 수 있다면 영광일 거예요, 사령관님!”

실바나스의 입술에서 부드러운 노래 같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타노스는 꼭 다문 잇새로 한숨을 뱉었다. “시간이 늦었다, 스테판. 이제 그만 사령관님을 정신 사납게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소년이 뛰어가 버리기 전에, 실바나스는 고양이처럼 우아한 손짓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이걸 가지고 있거라.” 그녀가 소년의 손에 골드를 쥐여 주며 말했다. “네가 첫 검을 사도 되겠다고 사촌이 허락할 때까지 말이다.”

스테판의 미소는 어둑해지는 들판을 밝게 비출 정도로 환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튀어 올라 울타리를 기어오르더니, 목초지를 건너 달려갔다. 양 떼가 메에에 하며 달려가는 소년을 피해 옆으로 허겁지겁 흩어졌다. “이걸로 내 검을 살 거라고!” 듣는 이 없는 외침이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나타노스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렸다. “녀석한테 이제 저 골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듣게 생겼군요.”

실바나스는 언덕길로 스테판이 사라질 때까지 그를 바라봤다. “저 아이는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도 때때로 필요하듯 말이지.”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나타노스는 실바나스의 젊었을 적 모습이 궁금해졌다.

태양의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저물 때까지 그들은 침묵을 유지했다. 대화가 다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새들의 지저귀는 곤충의 웅웅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언제 떠나실 겁니까?” 마침내 나타노스가 입을 열었다.

실바나스가 희미하게 웃었다. “아마, 내일이 되겠지. 시간이 늦었다. 네 순찰대 사령관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그녀가 그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타노스를 지나치며 실바나스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는 잠시 실버문의 숲 새 없는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로르테마르 테론의 무시하는 듯한 비웃음에 대하여, 그리고 밀려드는 호드의 그림자에 대하여 잠시 생각했다. 그의 일부는 조부와 아버지가 그러했듯 이 땅을 일구어 사는 삶, 더 조용한 삶을 갈구했다. 순찰대를 그만두면 여생을 이곳에서 살 수 있었다. 집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순찰대장으로서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희생해야 했다.

나타노스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그의 집, 그를 기다리는 따스한 난로로 향하는 잘 닦인 길을 걸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았다. 정치 따위 옳이나 먹으라지. 세상 따위 옳이나 먹으라지! 그는 이미 실바나스와 약속한 것이 있었고, 그 무엇도 그가 그녀의 옆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 * *

“용사여, 어째서 망설이시지?”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게 분명한 실바나스의 목소리가 기억의 흐릿한 장막으로부터 나타노스를 끌어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삶은 다른 남자의 삶이었고, 이미 수년 전 죽어 없어졌다. 그를 인간으로 규정지어 주었던 것들—그의 집, 가족, 의무—은 이제 바뀌어버린 그의 존재와는 거리가 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블라이트콜러였다. 그는 포세이큰이었다. 더 이상 하이 엘프 순찰대 사령관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는 뱀시 여왕을 섬겼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잠깐, 그는 왕실의 어두운 돌벽에 메아리치는 자신의 걸걸한 목소리에 충격받았다. 자신의 입에서 인간의 목소리라도 나오길 기대한 것인가. 멍청이 같으니!

“의식은 널 강하게 만들 거다.” 실바나스가 대답했다. 거대한 원형 방의 제단 주위를 걷는 그녀의 붉은 눈이 타올랐다. “군단이 호드의 영역을 습격하고 있는 지금, 나의 용사는 강해야 한다.”

나타노스는 실바나스에게 두었던 시선을 그녀 뒤에 떠 있는 절제된 모습의 발키르에게 돌렸다. 망령의 활짝 펴진 날개는 제단을 둘러싼 거대한 기둥 둘 사이의 20 보는 될 법한 거리를 덮을 지경이었다. 그의 여왕은 언더시티에 있을 때부터 유령과 구울 하수인을 부리곤 했지만, 무거운 투구로 얼굴을 가린 발키르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였다. 발키르 여전사가 한때 죽은 자들을 관장하며, 가치 있는 영혼들에게 명예로운 안식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발키르는 그녀의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실바나스 윈드러너를 살해하고 죽지 못하는 저주를 내린 악랄한 리치 왕에게 예속되어 그의 명에 따라 군대를 조직한 존재 아니었던가.

의심이 그를 멈칫하게 했다. 여왕이 리치 왕이 쓰러진 이후 이 존재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는 것이 과연 잘한 선택일까? 하지만 그는 재빨리 자신을 책망하며 의심을 지워냈다. 발키르는 실바나스를 위해 새로운 포세이큰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어둠의 여왕은 누구보다 지혜롭다. 언제나.

그러나, 나타노스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자극했다. “제가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새로운 용사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바나스의 눈이 주홍빛으로 붉게 타올랐다. “넌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일말의 뱀시 울음소리로 울리자, 목소리에 답하듯 벽의 태피스트리가 진동했다.

그는 실바나스의 성질을 긁은 게 즐거웠지만, 그걸 내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잠시 소리 없이 분노하던 어둠의 여왕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발키르의 힘은 앞으로 나의 육체를 유지하는 걸 도울 것이다. 너의 한 때 인간이었던 몸은, 나의 다른 포세이큰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건디지는 못할 것이다. 부패를 막고, 내가 경험했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그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여 그녀가 뱀지 않은 말까지 이해했음을 드러냈다. 실바나스는 오직 나타노스에게만 리치 왕의 몰락 이후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그녀는 이 세계에서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보았고, 영원한 안식을 찾았었다. 하지만, 그녀가 얼음왕관 성채에 몸을 던졌을 때, 기다리는 것은 오직 공허의 가차 없는 갈구뿐이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 진정한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쥐었음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

발키르와의 계약은 그날 그녀를 구했고, 나타노스는 이에 대해 이기적인 행복을 느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여왕이 죽었다면, 생명의 복제품 같은 삶을 계속해 나갈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선고받는다면, 그는 적어도 자신의 목숨을 끊고 그녀 곁에서 함께 벌을 받을 수 있었을 테니.

“어쩌면, 절 포기하시는 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 일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그는 한순간 그 눈동자에 푸른색이 도는 회색빛이 반짝이는 걸 보았다. 하지만, 이내 눈동자는 차갑고 위압적으로 변했다. “나는 지금까지 네게 나를 위해 일하라고 두 번이나 명한 바 있다,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 내가 명하기 전까지 너는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 * *

세상은 짙은 안개 속의 몽롱함 속에서 유명했다. 이성도, 상식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증오만이 있었다. 증오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고, 그 담쟁이는 덩굴처럼 그의 악취 나는 속을 잠식했다. 이전의 그는 살해당했고, 그의 피는 이제 그가 집이라 부르던 농지를 짜게 물들였다. 죽은 남자의 육체를 지냈지만, 그 몸은 자신만의 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리치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다.

그는 다시 가장 최근 사냥한, 반쯤 먹은 시체가 널브러진 땅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덜미를 한입 가득 뜯어 먹으며 따듯한 힘이 몸에 공급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잡아먹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며, 죽어버린 두 눈에 공포가 박제되는 모습이 가져다준 환희를 기억했다. 그 감각을 갈구하며, 그는 한 입 더 찢어냈다.

되살아난 지 며칠, 아니 몇 년이 지났을까?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은 필멸자의 짐이었고, 주인의 선물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단 하나의 목적이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으니, 그건 바로 로데론의 몰락한 왕국에 불사의 역병을 퍼뜨리고자 하는 충동이었다. 인간 시절 그의 영혼이 사랑했던 모든 땅을 이제는 피폐하게 만드는 것. 그의 마음에 악의가 아닌 다른 감정이 존재할 틈이 있었더라면, 그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길고도 큰 웃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포식을 멈추고 기다렸다. 그것은 오직 그의 주인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었다.

주인의 의지를 감지하고 짧은 시간이 지나갔다. 생명이 빠져나간 그의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한 부정한 마법이 이제 여자의 몸도 움직이게 했다. 그는 자신의 먹이였던 시체가 스컬지로서, 삶의 끝에 다다른 모양새를

황홀한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불사의 두 눈에는 공포가 사라지고, 그을린 분노만이 존재했다.

얼마 안 남은 피부로 매달려 있는 턱뼈가 망가지지만 앓았더라도, 그녀는 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또한 그녀에게 미소로 답했을지도 모른다. 순간 그녀의 두개골을 파괴하고 지나간 화살의 충격이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의 새로운 동료는 머리가 날아간, 움찔거리는 몸뚱어리가 되었다.

공격을 가한 자들을 마주하기 위해 몸을 돌렸다. 망토를 뒤집어쓴 세 인영이 그 앞에서 있었다. 그의 일부는 그들의 무기를 알아보고는 그들의 활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았지만, 그 기억들은 흐릿하게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졌다. 그는 죽은 인간의 마음에 남아있는 쓸모없는 감상에 머물지 않았다. 솟구쳐 오르는 증오만이 내보내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가 도약하려고 몸을 긴장시키자, 중간에 선 이가 지시를 내렸다. 양옆에 있는 자들이 일제히 정조준하여 그의 다리에 무겁고 뭉툭한 화살을 쏟아부었다. 그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가 일어서려고 하면, 더 많은 화살이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망할 놈들! 그는 이들이 아까 여자와는 달리 자신을 살려두는 이유를 따져볼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들의 어두운 갑옷 아래 비치는 살을 먹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이 자신처럼 스컬지로 다시 일어나면, 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터였다. 나타노스가 그랬던 것처럼 증오만이 그들의 무기가 될 테니.

굶주림을 더 자극하기 위해 냄새를 맡았지만, 그들의 냄새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적들은 인간도, 엘프도 아니었다. 그들은 산 자가 아니었다—오히려 그와 같이 죽은 자였다. 어쩌서 이런 존재들이 주인의 뜻을 거슬러 행동한단 말인가? 연이은 화살에 나타노스는 무릎을 꿇었고, 두들겨 맞은 동물의 공포와 좌절이 그를 휘감았다.

“나타노스!”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다. 그 이름은 죽어, 이미 역병이 덮친 매리스의 땅에서 굶아 터졌다. 감히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다니! 분노가 그의 내장을 뒤흔들며, 뜨겁게 날뛰었다. 이 침입자들을 죽일 것이다. 저 여자의 육신을 뜯어 먹을 것이다. 죽음의 허기를 채울 것이다.

하지만 망토를 쓴 여자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의 이름은 명령으로 변했다. 그녀는 단어 하나만으로, 분노만 남은 그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 그를 움켜쥐었다.

안 돼. 증오가. 주인님의 뜻이. 주인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파괴만이 그 결말이다!

“나타노스!” 그녀가 다시 불렀을 때는, 주인님의 뱀시가 전투에서 쓰는 울부짖는 목소리였다. 그 강렬함이 그를 놀라게 했다. 리치 왕의 명령으로 이곳에 온 것인가?

“나타노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를 관통하는 깨달음이 분노의 안개를 내쫓았다.

저 목소리. 어떻게 잊었던 걸까.

실바나스 님.

그녀가 두건을 벗자, 역병지대의 짙은 누런 빛이 엘프의 얼굴을 비쳤다. 아름답고 생기 넘쳤던 피부는 이제 잿빛이었다. 금실 같던 머리카락은 흐릿하고 광택이 없었다. 청량한 푸른빛이 돌던 회색 눈은 이제 그을린 붉은빛이었다. 실바나스 또한 몰락했다는 사실이 주는 비탄의 응어리가 그의 목을 메이게 했다. 하지만 비통한 마음은 이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이 내보이는 지독한 장엄함에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생전, 그는 그녀가 여왕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불사가 된 그녀는, 여신의 힘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내려 최근의 사냥으로 짙은 붉은색으로 물든, 자신의 비틀어지고 얼룩덜룩해진 손가락을 쳐다봤다. 실바나스와의 재회가 가져온 환희도 잠시, 수치심이 그를 휩쓸었다. 옛 모습은 간데없이 늙고 끔찍해진 자신의 모습을 그녀가 본다고 생각하니, 역겨움이 차올랐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그는 팔을 들어 부패하는 얼굴을 가렸다.

“실바나스 님.” 바싹 마른 입술에서 거친 목소리가 나왔다. 낮선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치 왕의 병사로서 충성을 맹세한 이후 그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었다— 그저 죽이면 되었으니.

“널 찾으러 왔다, 나타노스. 다시 내 편에 서는 거다.”

그는 그녀와 함께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를 쳐다볼 자격조차도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운, 그녀의 힘에 매료되어, 나타노스는 팔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제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째서 이런 괴물이 당신을 섬기길 바라시는 겁니까?”

실바나스는 땅에 흩뿌려진 걸쭉한 시체의 파편을 떨쳐 버리기라도 하는 듯 양손을 휘저었다. “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거다, 나타노스. 리치 왕의 굴레에서 벗어난 포세이큰으로 이루어진 왕국 말이야. 내 용사가 되어, 함께 놈에게 끔찍한 고통을 내려주자. 아서스는 대가를 치러야 할 테니까!”

악한 냉소가 그의 비틀어진 입술에 머물렀다. 서서히 잠식해 왔던 통제의 안개가 사라졌고, 그는 이전의 주인에게 복수할 생각에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증오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파먹고 있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의지로써 움직였다.

아니. 그의 의지가 아니었다.

언제나 그랬듯, 그것은 그녀의 의지였다.

나타노스가 일어나자 실바나스를 보좌하는 어둠 순찰자들이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머리를 숙였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둠의 여왕이시여. 제 생이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 * *

나타노스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활을 쥔 만큼의, 그리고 가장 영성한 학생들에게 시위를 거는 방법을 알려줄 만큼의 피부와 힘줄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겉보기에도 힘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불사의 육신은 피할 수 없는 부패를 진행해 나갔고, 언젠가 이 손은 쓸 수 없게 되거나 썩어 문드러지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녀에게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 아닌가?

썩어가는 껍데기지만,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나의 여왕이시여.”

실바나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서스는 한 때 발키르를 이용해 죽음의 기사를 되살려 병력에 보탬다. 갓 죽은 시체들을 포세이돈으로 만드는 의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식이었지. 발키르의 힘을 사용하면 네 육체를 재정비하여 더 강하고, 더... 오래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발키르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실바나스는 완고하게 선 전투 여전사의 망령에 시선을 던졌다. “이는 고된 작업이라, 발키르가 꺼려하는 일이다. 리치 왕의 마력이 더는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으니, 자기 자신의 생명을 깎아야 하겠지.” 그녀는 나타노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 그러니 그대로 될 것이다.”

나타노스가 뱀시 여왕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다. 그녀를 도발하는 재미를 위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답이 필요했다. “발키르가 이 의식을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면...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녀의 눈을 스쳐 간 것은 고통이었을까? 그게 맞든 아니든, 눈동자를 채운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직 결단과 불굴의 의지만 남았다. “말했지 않나. 군단은 우리 모두를 삼키려고 위협한다. 나는 날 보좌할 용사가 필요해.”

분명 그는 하찮은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그렇게 칭할 때마다 무언가 그의 안에서 정신없이 날뛰었다.

“그렇다면 발키르에게 서두르라고 하십시오.” 나타노스가 으르렁거렸다. “훈련시켜야 할 순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바나스는 그에게 희미한 미소를 보인 뒤 발키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사는 알현실 벽의 벽감으로 다가갔다. 여왕이 주문을 외우자 벽을 이루던 돌들이 나누어지며, 어두운 복도가 드러났다. 그녀가 비밀리에 도시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였고, 그는 그녀가 그에게도 말하지 않는 통로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미로를 따라 이동했다. 미로는 잠재적인 암살자들을 교란하기 위해 직선로와 여기저기 꼬인 길로 이루어져 있었다. 발키르는 마법 지구에 맥동하는 어두운 마력을 느낀 건지, 길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뒤에는 마력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그조차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마지막 길목을 돌아 막다른 길이 나왔다. 실바나스가 손짓과 함께 무언가를 말하자, 길이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섰다.

등불이 방 벽에 빼곡하게 꽂혀 있는 고서와 마법 도구들이 놓인 선반을 비추었다. 방의 중앙에 위치한 제단 위에는 커다란 석판 두 개가 놓여있었다. 석판 하나는 비어있었다. 다른 석판에는 재갈 물린 인간 하나가 바지 하나 입은 채로 두꺼운 가죽에 묶여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질 좋은 금빛 갑옷, 전쟁망치와 방패가 놓여 있었다. 나타노스는 방어구에 새겨진 은빛십자군의 인장을 보았다. 포로는 꼼짝없이 붙잡혀 있긴 했지만, 신체가 훼손되거나 고문받지는 않은 듯했다. 나타노스는 혀를 찼다. 수많은 성기사들을 포획하거나 죽였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내버려 둔 경우는 얼마 보지 못했다.

남자를 가리키며, 블라이트콜러는 여왕에게 물었다. “*이건* 뭐니까?”

“연료.” 발키르가 얼음처럼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바나스가 남자가 누워있는 제단으로 향했다. “의식을 거행하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네 것과... 유사한 육신이야.” 성기사의 머리 가까이에 선 그녀가 나타노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험이라도 하는 건가? 그녀는 그가 무엇을 보길 원하는 건가? 나타노스는 가까이 다가와 인간을 모습을 관찰했다. 필멸자의 진지해 보이는 눈썹과 강직한 턱, 그리고 벗어나려는 투지 어린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순간 나타노스는 성기사의 모습이 자신의 인간 시절 모습과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깨어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과거의 기억들은 전부 잊힌 줄로만 알았는데, 이 인간을 보니 마치 과거의 모습을 엿보는 기분이었다.

그의 과거...

순간, 인간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눈동자는 공포를 담고 있지 않았다—오직 경멸과 함께,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인식뿐.

나타노스는 몸을 숙여 포로의 재갈을 풀었다. “안녕, 나의 사촌.”

스테판의 얼굴에 혐오감이 밀려들어왔다. “빛에게 기도했어. 형이 진실로 죽었기를. 형의 영혼이 안식을 찾았기를.” 그의 말에는 비탄과 함께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나타노스가 웃었다. “물어볼 게 있다. 순찰대 사령관님이 네게 건넨 골드를 결국 썼느냐?”

“가지고 있었어.” 성기사가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트라솔름이 무너지고, 스컬지가 로데론을 망치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형이 살아남았기를 바라며 가지고 있었어.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지만, 다들 대답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침묵하더군. 그러다 블라이트콜러가 매리스의 땅을 맴돌며, 평화를 되찾고자 하는 얼라이언스의 영웅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 난 그놈이 형을 죽였다고 생각했고, 놈의 목을 치겠다고 맹세했지. 다로우골의 피난민 둘이 그 악마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난 후에야 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깨달았지.”

스테판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날, 난 그 동전을 강에 버렸어.” 그러고는 돌바닥에 침을 뱉었다.

나타노스는 침묵하며 서 있었다. 진실을 외면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여왕의 명령을 받고 농지를 맴돌며, 적을 유인해 죽였다. 그는 특히 북쪽 산맥에서 온 하이 엘프 순찰자들, 그가 한때 함께 일하고 지시를 내렸던 바로 그 순찰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걸 즐겼다. 그들의 오만한 분노는 죽음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거나, 불사의 저주로 다시 깨어난 자들에 대한 숨김 없는 경멸의 표정으로 일그러져 갔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고결한 영웅이든 가까운 친구였든, 나타노스는 동정도 회한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 했을 뿐이었고, 그 임무는 그와 잘 맞았다. 승리를 통해 어둠의 여왕의 총애를 받았다. 그 외에 그가 원하는 건 없었다.

실바나스가 포로의 어깨를 두드리자, 스테판은 발작하듯 그녀의 손길을 벗어나려 했다. “듣기로는 기사들의 맹세를 한 후, 네 사촌은 네 옛 농지 근처의 역병지대를 정찰한 듯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쪽 병사 다수를 쓰러뜨렸지.” 포로에게 몸을 숙인 실바나스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변했다. “어둠 순찰자들에게 이자의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이제 이 성기사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쓰일 것이다.”

“난 네놈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스테판은 이를 꽉 깨물며 맹세했다.

“걱정할 것 없다, 동생아.” 나타노스가 음침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실바나스 님의 계획이 아니다.”

벤시의 여왕이 웃었다. “정확히는 아니지.” 실바나스는 물러서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무력하게 누워있는 사촌을 내려다보는 나타노스의 심장에 낯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다. 동정심? 아니다. 그는 그런 감정을 더이상 느끼지 못했으니. 하지만, 다른 살아있는 인간과는 달리 나타노스는 이성기사가 싫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스테판이 소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 꿈이 지금 깨지려는 순간임에도 말이다.

나타노스는 실바나스를 올려다보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걸 진정 시험인가? 사촌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를 배신할 거로 의심하고 있는 건가? 선택의 순간 앞에, 마지막 남은 인간성이 간절하게 반짝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리라 예상한 건가?

하지만 애초에 선택지는 없었다. 오래전 죽어버린 남자의 감상 따위가 나타노스 블라이트컬러의 맹세를 흔들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의식을 거행하지요.” 그가 비어 있는 제단으로 향하며 외쳤다.

“빛이 날 구원해주실 거야!” 스테판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 섞인 절박함이 그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곳에선 빛도 널 찾지 못한다, 아이야.” 나타노스가 그의 여왕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함께, 어둠을 맞아들이자꾸나.”

발키르는 소리 없이 버둥거리는 인간과 고요한 불사의 존재 사이에 미끄러지듯 내려와 멈추었다. 나타노스는 여전사를 노려보았다. 망가진 얼굴이 그 안에서 얼어붙은 날카로운 망설임을 숨겨주었다. 날개를 펴고 팔을 높게 든 발키르는 방 전체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다. 고대의 언어로 목을 울려 주문을 외우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리치 왕의 힘이 섞인 끔찍한 장송곡 같았다. 망령은 석판 위에 임했고 그녀의 두 손에서는 푸른색과 금색으로 번쩍이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를 꼭 다문 채, 나타노스의 세계는 화염과 고통의 불협화음 속에서 폭발했다.

극심한 고통이었다.

* * *

고통의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정신을 차리자, 나타노스의 깜빡거리는 눈에 방의 모습이 들어왔다.

발키르는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완고해 보이던 존재는 이제 작고 약해 보였다.

어둠의 여왕이 나타노스 곁에 서 있었다. “기분이 어떤가, 블라이트컬러?”

“죽은 자의 기분입니다.” 건조한 목소리로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그는 낮선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반쯤 마비된 자의 미약하게 갈리는 목소리도, 살아있는 인간의 생기 어린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했으나, 뱀시의 목소리와도 달랐다.

실바나스의 눈동자가 빛났다. “일어나라, 용사여!”

그는 의식 제단의 석판에서 다리를 내렸다. 일어난 그는 낮선 팔다리의 감각을 느끼며 놀라움에 살짝 숨을 들이마셨다. 선물을 열어보는 아이처럼, 그는 왼손에 낀 장갑을 벗고 놀란 눈으로 손가락을 펴보았다.

튀어나온 뼈도 없었다. 덜렁거리는 피부나 찢어진 근육도 없었다. 산 자의 손은 아니었지만, 온전하고 힘이 실린 손이었다.

여왕의 용사에 어울리는 손이라고 나타노스는 생각했다.

그는 손을 들어 뺨을 만져보았다. 두개골에 험겁게 매달려 있던 말라붙은, 종잇장 같은 피부 대신 좀 더 살이 붙은 얼굴이 느껴졌다. 손끝으로 턱선을 따라 난 역센 수염을 더듬어 보았다. 나타노스는 그 감각에 경이를 느꼈다. 마치 사람을 만지는 기분이었다.

거의.

그가 실바나스에게 몸을 돌렸다. “제 모습이 좀 어떠십니까?” 그는 별거 아니라는 투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다.

“허영에 넘치는구나, 블라이트콜러!” 우스운 듯한 실바나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그 속에서 기쁨 또한 느꼈다. 발키르가 자신의 뜻에 굴복했다는 게 기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꼭두각시를 얻게 되었음에 만족하는 것인가? 그녀는 나타노스를 이끌어 벽에 걸린 화려한 테두리로 장식된 거대한 타원형의 거울 앞에 서게 했다. “직접 보라.”

실버문의 순찰대 사령관 시절부터, 실바나스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안 그럴 이유가 있겠는가? 하이 엘프의 기준에서도, 윈드러너가 세 자매 중 둘째는 특별히 아름다웠다. 수많은 명망 있는 가문의 군주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 했다. 심지어 선스트라이더 왕자마저 그것을 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자신을 비춰보는 행위는 의미를 갖지 않게 됐다. 포세이큰은 거울을 통해 다른 종족들이 역겨워 하는 자신들의 끔찍한 모습과 썩은 육신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불사의 존재들은 산 자들이 결국 맞이해야 할 운명의 현신이었다—언젠가는 땅에 묻힌 채 썩게 되리라는 운명 말이다... 뱀시 여왕의 부름을 받지 않는다면.

물론, 실바나스는 여전히 자신의 전당에 거울을 몇 개 두었다. 죽음으로 인해 본래의 우아함은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불사가 된 그녀의 모습은 어두운 매력으로 넘쳐났고, 이는 나타노스를 매료시켰다. 필멸자가 세운

왕국의 증오스러운 적 중에는, 공개적으로는 그녀의 통치와 포세이큰의 존재를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어둠의 여왕에 대한 관심 어린 속삭임을 몰래 주고받는 위선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훤히 알았다. 비록 그런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지만, 실바나스의 마음 깊은 곳에도 그러한 관심을 즐기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나타노스는 생각했다.

나타노스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누런빛을 띤 창백한 색이었지만, 피부는 제대로 붙어있었다. 죽음을 겪은 이후 처음으로 힘없는 노인처럼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설 수 있었다. 그의 빛나는 붉은색 눈동자만 아니었다면, 언더시티의 희미한 빛은 그를 인간으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이 변화가 달가웠지만, 실바나스가 그 사실을 알 필요는 없었다. “뭐, 됐다면 된 거겠지요.” 그는 그녀의 표정이 흐려진 미소에서 번뜩이는 분노로, 다시 만족감으로 물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는 네 여왕의 이름으로 수천의 악마를 정복할 것이다!” 그녀가 선언했다.

나타노스의 직감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새로이 공급된 힘을 통해 앞으로의 전쟁에서 그녀를 잘 보좌할 수 있을 것이었다. 승리하고 난 뒤, 정말, 정말, 운이 따라 준다면,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고 함께 지옥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얼굴이 완전히 예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 그는 두 번째 의식 석판 위에 놓인 재 조금과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얼룩들을 바라보았다. 꼼꼼하게 광을 냈던 성기사의 갑옷은 흠집이 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타노스는 그것이 그저 쓰러진 적의 잔해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 누더기 옷을 입는 것은 예전 삶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어둠의 여왕이 말했고, 그는 그게 사실임을 알았다. 어째서 그는 인간일 때... 또 스컬지였을 때조차 똑같은 누더기 옷을 고집했던 걸까? 단순히 새로운 갑옷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무신경했던 걸까? 아니면 과거의 흔적을 통해 위안을 느꼈던 걸까?

실바나스는 어두운 구석자리로 그에게 손짓했고, 그제야 나타노스는 방 가장자리에 보초를 선 어둠 순찰자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밴시 여왕은 영리했다. 발키르의 의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를 제압할 궁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안야, 나의 용사를 무기고에 데려가 신분에 걸맞은 장비를 갖추도록 해 주어라.”

어둠 순찰자는 조용히 지시를 받들었고, 나타노스에게 앞장서라는 손짓을 했다. 나타노스는 방을 나가며 실바나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등불의 희미한 반짝임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비밀 통로에서 빠져나온 둘은 언더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외곽으로 통하는 긴 복도를 가로질렀다. 공동 구역에 들어서니, 나타노스는 이내 새로운 육체의 단점을 알게 됐다. 그의 다른 신체 부분과 함께, 후각도 다시 좋아진 것이다. 세 명의 포세이큰 무리가 지나가자, 나타노스는 그들의 썩은 육체에서 나는 악취에

구역질이 날 뻔했다. 의식으로 깨어난 이후 죽음의 냄새를 느끼지 못했으나, 이곳에 나오니 수천의 불사의 존재들에게서 나는 냄새의 파도가 사납게 그를 몰아쳤다.

나타노스는 그 섯이 지나갈 때까지 정신을 똑바로 유지하며, 속으로 다시는 방심하지 아니하리라는 맹세를 했다.

안야가 그의 약한 모습을 눈치챈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어둠의 여왕님께서 저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오래간만에 봅니다. 발키르가 그런 의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걸 아신 순간, 그분은 당신을 찾으셨죠.”

“여왕님은 지혜로우시지.”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 몸이라면 그녀를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다.”

안야가 웃었다. 그 소리에 나타노스의 뒷목에 난 털이 쭈뼛 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가 툭 쏘듯 물었다. 발키르는 그의 성미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는 거의 외치듯 물었다. 어둠 순찰자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죠. 여왕님께는 이제 더 강력한 용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애매한 태도에 화가 난 나타노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대답해라.”

안야의 입가가 뻥뻥하게 말려 올라갔다. “실바나스 님은 당신을 순찰대장으로 만들기 위해 왕궁과 각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스컬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역병지대를 살살이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소중한 자원을 사용해 당신의 힘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블라이트콜러 님, 이 모든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같은 영민하신 분이 이런 단순한 진실을 놓치고 계신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타노스는 턱을 굳게 닫은 채 그녀를 노려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을 채웠던 즐거움이 빠져나갔다. 멍청한 순찰자 같으니! 여왕은 그런 시시한 감상에 젖지 않았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필멸자로서의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분노와 경멸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나타노스 블라이트콜러, 밴시 여왕의 용사였다. 그녀의 적에게 선사할 혼돈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책망당한 안야는 조용히 뒤따랐다.

군사 지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러운 불협화음이 되어 울려 퍼졌다. 허수아비를 난도질하는 것 들어온 신입 무리에게 교관이 무언가 외치는 게 보였고, 간간이 얼라이언스 포로의 모습도 보였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저런 신입을 훈련된 병사로 키워왔던 나타노스는, 한 번 보고서도 그 무리가 특히 한심할 거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들의 무능함을 바로잡으리라 결심하고는, 계속해 무기고 쪽으로 향했다.

방의 돌벽에 줄줄이 설치된 받침대 위에는 장비와 무기가 높이 쌓여 있었다. 나타노스는 자신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충분히 보호해줄 판금과 가죽 사이의 장비를 찾았다. 숲과 그림자 속에 은폐할 수 있도록 녹색과 회색이 섞인 장비를 골랐다.

무기고를 나가려 돌아서는 순간, 갑옷 선반에 어수선하게 놓인, 잘 닦여진 금속이 등불에 반짝이는 게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갑옷 몇 개를 들춰내니 깨끗하고 잘 관리된 정교한 가슴보호갑이 보였다. 그는 조금 전 있었던 의식, 그의 옆에 놓여 있던 빈 제단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의 선택을 떠올렸다.

아주 잠시 동안, 낯선 감정이 찾아와 그를 동요시켰다.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여긴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그를 은밀히 따라다니던, 필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과도 같은 그 감정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어, 그의 목을 죄어왔다.

나타노스는 후회하고 있었다.